

[IBREA-USA] 2008/1/17, UN 뇌교육 강연



미국 시각으로 1월 17일 유엔에서 첫 뇌교육 강연이 개최되었다. CONGO(유엔NGO협의체) 교육위원회 주최로 UN Church Center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Education for Human rights(인권을 위한 교육)’이란 타이틀로 열렸으며, 이 날 컨퍼런스에는 DPI(유엔공보국) 의장을 비롯해 유네스코 관계자, CONGO 교육위원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국제뇌교육협회의 자문기관인 한국뇌과학연구원은 유엔자문기구(UN Consultative Status: 유엔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부여받는 협의지위) 자격으로 참가하였으며, 발표는 미주뇌교육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워싱턴 파커 박사가 맡았다.

워싱턴 부회장은 ‘Brain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dignity(인권과 존엄성을 위한 뇌교육)’이란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국에서 시작된 뇌교육은 인간이 가진 본래의 가치를 회복할 인간중심의 교육법으로, 현재 미국 교육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성문제, 집중력 저하 등 교육문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참석자들은 뇌체조와 스트레칭을 비롯해 몸을 통해 뇌를 깨우는 일부 뇌교육 방법을 따라해 보며 체험적 교육방법을 중시하는 뇌교육을 다함께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미주 뇌교육보급을 총괄하고 있는 미주뇌교육협회(IBREA-USA)는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에 개설한 ‘한국뇌과학연구원 뉴욕 UN 연락사무소’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미주에서의 뇌교육 보급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미주뇌교육협회는 올해 미국 내 1,000개 학교에 뇌교육을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기업들 대상의 회원사 가입을 통해 기업교육에도 효과적인 뇌교육을 알려갈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뇌교육을 바탕으로 한 산업교육전문기관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50만 명의 직장인들이 교육을 이수할 만큼 기업교육 분야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IBREA-KOREA] 뇌교육전문지 <브레인: 뇌교육 특별호> 공동발행



국제뇌교육협회는 자문기관인 한국뇌과학연구원과 <브레인: 뇌교육특별호>판을 공동발행하였다.

뇌교육특별호에는 지난 1년간 <브레인>에서 발행된 두 뇌올림피아드를 비롯해 뇌교육 사례기사, 해외보급 현황 등 뇌교육의 현황과 미래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사들로만 구성되어, 뇌교육에 궁금해 하는 이들에게 좋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브레인>은 UN자문기구인 한국뇌과학연구원이 2006년 11월에 창간한 뇌교육전문지로, 건강, 과학, 교육, 문화 영역 등 사회 전반에 걸쳐 21세기 대표키워드인 ‘뇌’를 알리는 전문매체로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뇌교육에 관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실고 있다.

[주요기사]

- 두뇌올림피아드 IHSP0 종목소개
- 한국 뇌교육, 세계로 뻗어나가다 - 3회 뉴욕 올림피아드
- 한국뇌과학연구원, 뇌교육분야 유엔자문기구 지정
- 1회 올림피아드 대상 김성태 인터뷰
- 2회 올림피아드 대상 김민성 인터뷰, 과기부장관상
- 3회 올림피아드 한국대상 김재홍 인터뷰, 교육부총리상
- [특별기획] 21세기 교육혁명, 뇌교육
- [칼럼1] 한국인적자원개발의 미래 뇌교육 - 이승현
- [칼럼2] 21세기 뇌융합시대와 한국의 미래 - 이승현
- 뇌교육의 메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UBE 탐방
- 뇌교육 교사과정을 찾아서 - 한국뇌교육원
- 꼬마야, 네 속의 황금요술공을 만나봐 - 뇌교육 유치원 조태임원장
- 뇌와 친구가 되는 아이들 - 방과후학교 (박분남 강사, 이선희 교사)
- 아이들의 뇌를 깨우다 - 심지현 교사
- 아이야 웃는 뇌를 상상할까 - 김진희 교사
- 뇌에게 무한한 가능성 가르치다 - 하태민 교사
- 성공보다 성장을 위한 뇌교육 - 강완모 교사
- 뇌를 믿고 긍정하는 씨앗을 키우는 교육, 뇌교육 - 전준식, 오흥미 교사